

신라의 백률사와 관음보살상

Baekyulsa Temple of Silla and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저자 (Authors)	여성구 Yeo, Sung-gu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27 , 2017.12, 311-350(40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27 , 2017.12, 311-350(4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94079
APA Style	여성구 (2017). 신라의 백률사와 관음보살상. 한국고대사탐구, 27, 311-3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1 13: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의 백률사와 관음보살상

여 성 구*

- I. 머리말
- II. 백률사와 자추사
- III. 고려시대의 백률사
- IV. 백률사의 목조관음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삼국유사』 백률사조의 내용 중 도입부에 해당하는 백률사의 위치, 관음상 조상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핀 글이다. 본고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차돈의 추모의식이 자추사 또는 백률사가 아닌 흥륜사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한 결과, 백률사는 자추사를 이은 절이 아님을 밝혔다. 백률사는 통일 전후 화랑, 백성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거나,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고, 나아가 多産을 위해 세운 사찰일 수도 있다. 백률사는 통일 전후 중대 왕실의 위민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사찰이 아닐까 한다.

둘째, 백률사는 삼소관음도량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찰이다. 고려말 백률사는 여러 戰禍로 크게 쇠락하였고, 이후 조선 초까지 중수 작업이 진행되었다. 삼소관음도량 중 중생사와 민장사는 고려시대에 폐사되었고, 이곳에 봉안된 관음상은 영묘사에 이전되었다가 조선초 백률사를 중수하면서, 두 관음상을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이때 백률사에는 3개의 관음상이 있었고, 이들 중 하나를 태조의 원찰인 양주 개경사로 이전 봉안하였다.

셋째, 고려말 조선초 백률사에는 목조 관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삼소관음도량의 하나인 중생사 관음상은 塑造였음으로 삼소관음상을 중국 畫工(또는 神匠)이 제작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백률사 관음보살의 영험담으로 부레량 설화 외에도 전쟁을 종식시켰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 주었다는 설화도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있었는데, 일연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아 그 설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고려말 조선초 백률사 관음보살을 백의관음상 또는 수월관음상이라고 했는데, 별개의 관음상은 아니었으며, 동일 관음상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물론 이 관음상이 신라시대의 작품인지, 이후 재조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불상에 대한 외경심이 컸던 신라인, 고려인들의 관념을 볼 때, 재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기 작품과 비교해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백률사, 자추사, 개경사, 중생사, 민장사, 부례랑, 관음보살, 백의관음

I. 머리말

『삼국유사』 백률사조에는 백률사 관음보살이 만파식적을 이용해 국선 부례랑과 안상을 구하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백률사조의 내용 구성은 대략 (1) 도입부의 백률사 위치, 대비상 제작, 대비상의 신이한 자취, (2) 본론부의 국선 부례랑의 피랍과 구출담, (3) 결론부에서 안상의 출자설 등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례랑 설화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간략하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항목명을 ‘백률사’라고 이름한 것을 보면, 백률사와 관음보살상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백률사 관음보살의 영험담만을 서술했다면 감통편에 넣어도 좋을 듯한데, 탑상편에 수록한 것은 영험담 뿐만 아니라 백률사 전체를 살피려고 했던 일연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백률사조의 도입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이유는 백률사조의 중심 내용인 부례랑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백률사 자체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부

례랑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그의 피랍과 관련해 효소왕대의 정치사를 해석하려는 논고에서 주요 자료로 인용해 왔다.¹⁾ 도입부분과 관련해서는 백률사와 자추사의 연관성을 살핀 논고가 있으며²⁾, 삼소관음을 살피면서 일부 언급한 논고가 있다.³⁾ 백률사와 자추사의 관계, 백률사 관음보살상의 실체, 백률사 관음의 영험담 등은 기왕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주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백률사와 자추사의 연관성을 좀 더 규명하고, 백률사의 창건시기를 추론해 보았다. 둘째, 고려시대의 백률사의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신라시대의 백률사의 모습을 역으로 추적해 보았으며, 부례랑 설화에 보이는 관음보살의 영험담 외에 또 다른 영험담을 살펴보았다. 셋째, 백률사 관음보살상의 제작 및 관음보살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부례랑 설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백률사 관음신앙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신라 경주의 삼소관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백률사와 자추사

『삼국유사』 백률사조 도입부는 백률사의 위치, 대비상의 제작, 바위의 흔적(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일연이 정리해 작성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 1) 徐禎穆, 「孝昭王之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 『진단학보』 122, 2014 ; 신선훈,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 2) 김태형, 「이차돈 순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1, 2011.
- 3) 조범환, 「삼국유사 탐상편에 보이는 삼소관음증생사조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검토」 『신라문화재 학술논문집』 36, 2015.

보면 다음과 같다.

- (1)① 鷄林 북쪽 산을 金剛嶺이라 하고 산의 남쪽에는 栢栗寺가 있다.
 ② 그 절에 (觀音)大悲像이 하나 있는데 어느 때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영험이 자못 뚜렷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或云, “이것은 중국의 神匠이 衆生寺의 (觀音)塑像을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고 하였다.
 ③ 민간에서 말하기를[諺云, “이 大聖이 일찍이 忉利天에 올라갔다가 돌아와서 法堂에 들어갈 때에 밟았던 돌 위의 발자국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한다. 혹은 말하기를[或云, “(보살이) 夫禮郎을 구출하여 돌아올 때에 보였던 자취이다”라고 한다(이상 『삼국유사』 권 3, 탑상4, 백률사조).

(1)①은 백률사의 위치를 말한 내용이고 (1)②는 백률사의 관음보살상 제작에 대한 내용이다. (1)③은 백률사 불전 입구에 있는 바위의 발자국 흔적에 대해 두 가지 설, 즉 관음보살의 도리천 왕래설과 부레랑 구원 설을 소개하고 있다.

백률사는 경주 북쪽 金剛嶺(금강산) 남쪽에 위치해 있다. 동서가 가늘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금강산은 신라시대 경주 4악, 즉 토함산(동악), 남산(남악), 선도산(서악)과 함께 北岳으로 불렸다. 백률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의할 내용이 없다. 다만 현재 백률사 입구의 바위에 법당을 행해있는 자취를 관음보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를 보면 일연이 위에서 언급한 백률사는 지금의 백률사임을 알 수 있다. 백률사는 산세와 지형으로 보아 당초 가람창건이 매우 곤란한 곳에 산을 깎아 터를 잡았으며, 탑을 세울 수 없어 대웅전 옆의 巨巖에 3층의 석탑을 선각해 놓았다고 한다.⁴⁾

4) 朴日薰, 「신라미애탑상 경주백률사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1957.10.30. 이 글에서 석탑은 3단의 옥개석과 상륜부 보륜(6층), 보주의 형식을 볼 때, 신라 말엽에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972년 대웅전 동쪽 암벽에 음각된

여기에서는 백률사와 관련된 자추사, 이차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백률사가 자추사의 후신이라는 설(同寺說)과 별개의 사찰(二寺說)이라는 두 가지 설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⁵⁾ 자추사와 백률사의 同寺說을 치밀하게 비판한 논고에서는, 「이차돈순교비」의 발견 장소에 대한 부정확성, 신라부터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자료에도 자추사(이차돈)와 백률사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 刺楸寺에 대한 기존의 이두식 해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 가지 사실을 추가로 검증하며, 동사설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차돈의 추모의식이 자추사가 아닌 흥륜사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중고기 사찰이 중대에 들어 寺格이 낮아진다는 立論에 근거해 二寺說을 밝힐 것이다.

이차돈의 추모 사업을 언급한 자료로는 『삼국유사』의 기록 외에 「이차돈순교비」(순교비라고 줄임), 『해동고승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밖에 金大問의 『계림잡전』과 金用行이 지은 「我道和尚碑」를 참고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차돈의 순교 과정과 장면보다는 이후 그에 대한 추모 의식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① 元和 연간에 南澗寺의 沙門 一念이 嚮香墳禮佛結社文을 지었다. ... 드디어 北山의 서쪽 고개<즉 금강산이다. 傳에서는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밝히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

7층탑이 발견되었다(한국불교연구원 편, 『신라의 폐사』 I, 일지사, 1978, 77쪽). 일제강점기의 사진을 보면, 백률사 서루(鳳樓)는 지금의 범종각과 요사채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二寺說은 김태형(앞의 논문)과 신선혜(앞의 논문, 45-49쪽)의 연구를 들 수 있다. 同寺說에 대한 근거는 「善山 桃李寺阿度和尙事蹟碑」(1655)의 이차돈의 추모 사찰로 언급된 白聿寺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王及諸臣異之, 遂立寺. 其地名以白聿, 又賜敬林建刹供奉.” 김태형, 앞의 논문, 56쪽).
- 6) 김태형, 앞의 논문, 59-61쪽.

가>에 장사지냈다. 內人들은 이를 슬퍼하여 좋은 터를 잡아서 蘭若를 짓고 이름을 刺楸寺라고 하였다. 이에 집집마다 예를 하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닦으면 마땅히 불법의 이익을 깨닫게 되었다.

- ② 훗날 國統 惠隆, 法主 孝圓과 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眞怒, 波珍嶺 金嶽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다[建舊塋樹豐碑. (이때가) 원화 12년 丁酉(817) 8월 5일, 즉 제41대 헌덕대왕 9년이었다.
- ③ 흥륜사의 永秀禪師<이때는 瑜伽의 諸德을 모두 선사라고 불렀다.>가 이 무덤에 예불하는 香徒를 모아서 매달 5일에 혼의 妙願을 위해 단을 만들고 범패를 불렀다[營壇作梵].
- ④ 또 鄉傳에 이르기를, “鄉老들이 늘 그의 기일이 되면 社를 만들어 흥륜사에서 모였다”고 하였는데, 즉 이 달 초닷새는 사인이 몸을 바쳐 불법에 귀순하던 날이다(이상 삼국유사).
- ⑤ 원화 13년(헌덕왕 10년 ; 818년) 무술 8월 10일(중략) 시신을 北山에 안장하고 西山에 사당을 세웠다. 저 법흥왕이 즉위한 대동 15년 을미년(515) 이래로 지금 唐 永泰 2년(혜공왕 2, 766) 병오에 이르기까지 253년이다. 이때 老媿이 채찍을 들고 배회하며, 읍가[邑際]에 이르러 옛 무덤을 바라보니, 그 가운데 한 무덤에서 幼魂이 홀연히 나왔다(이하 줄임)(「순교비」)⁸⁾
- ⑥ 내가 東都에 갔을 때, 금강령에 올라 외로운 무덤과 작은 비석을 보고 개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날 山人들이 會食하고 있어 그 까

- 7) 신라는 踰月稱年法을 사용했기 때문에 즉위년은 514년(양무제의 天監 13년 갑오)이다. 기록대로 을미년이 정확하다면, 고려, 조선의 경우처럼 踰年稱年法을 적용한 것이 된다. 大同은 양무제의 535~545까지 사용한 연호로서 시기적 차이가 있다. 「순교비」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 8) 「백률사석당기」(남동신 역주,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1992), “元和十三季戊戌 八月十日… 葬北山 立廟西山. 彼法興王即位大同十五乙未年來達 今於唐永泰二年丙午二百五十三. 時有老媿策便旋 至於邑際 觀舊墳 於中一墳 忽出幼魂 老媿弔曰 噫歟子也 但看故人冢墓之丘 邂逅歎逢 如夢子魂 魂對曰 汝不聞乎 在昔有王 欲建佛法而不成 立余是獸…” 연구자들마다 이 비석에 대한 명칭이 다른데, 「異次頓六角石柱碑」(이병도), 「백률사석당기」(남동신), 「異次頓殉教碑」(신선혜) 등등이 있다. 백률사와 이차돈의 연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차돈순교비」라고 부르고자 한다.

답을 물었더니, 바로 우리 솜사의 기일이라 하였다(해동고승전).⁹⁾

위의 인용문은 출전에 따라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2)①-④는 『삼국유사』 권3, 흥법3, 原宗興法 厭觸滅身의 내용이다. 인용문 (2)⑤는 현전하는 「순교비」의 내용이며, (2)⑥은 『해동고승전』의 편자인 覺訓이 이차돈의 무덤과 短碑를 보고 쓴 내용이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다시 네 개로 나누어져 있다. (2)①은 一念이 지은 「鬻香墳禮佛結社文」(이하 결사문으로 줄임) 중 일연이 축약한 내용의 일부이다. (2)②는 「결사문」의 내용이 아닌 듯하며, 비슷한 시기에 이차돈 추모 사업으로 무덤 수리와 「풍비」 건립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연이 발췌한 내용이다. (2)③은 「결사문」에 따라 향도를 결성하였고, 추모 의식을 시행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2)④는 일연이 『향전』에서 이차돈 추모의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발췌한 내용이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일연은 (2)①, ③, ④에서 향도 결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2)②에서 향도 결사와 별개로 무덤 수리와 풍비 건립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듯 일연은 이차돈 관련 기록으로 「결사문」, 「豐碑」 『향전』 등을 참고해 原宗興法 厭觸滅身조를 편집했다. 「결사문」은 원화연간에 작성되었으며, 「풍비」는 817년에 건립되었고, 『향전』의 제작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¹⁰⁾ 백률사와 자추사의 동사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이차돈의 추모사찰인 자추사와 그의 추모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9) 『海東高僧傳』 권1, 流通1-1, 釋法空, “予遊東都, 登金剛嶺 見狐墳短碑 慨然不能自止. 是日山人會食問其故, 卽吾舍人諱日也.”

10) 『해동고승전』 법공조의 기록은 『향전』을 인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章輝玉, 『海東高僧傳研究』, 민족사, 1991, 173쪽).

1. 刺楸寺

자추사는 이차돈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법흥왕대 또는 그 이후에 창건된 사찰이 분명하다.¹¹⁾ 刺楸寺의 刺楸는 음나무 등 가시나무를 말한다. 음나무는 엄나무, 개두릅나무, 당엄나무, 당음나무라고도 하며, 모두 나무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나있다. 그리고 이차돈의 다른 이름인 厭觸의 厭은 猘를 도치해 쓴 글자[胃+犴]로서 고슴도치라고 풀이한 연구를 참고한다면,¹²⁾ 가시가 있는 음나무와 고슴도치는 분명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추사라는 이름은 이곳에 음나무가 많이 있거나, 가시가 빼곡히 난 고슴도치(엄촉, 이차돈)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자추사는 고슴도치의 가시를 뜻하는 ‘가시나무절’, ‘고슴도치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추사의 성격에 대해 이차돈의 사당이면서 추모사찰이라는 설이 있는데, 기존의 사찰이라는 설에 대해 사당의 성격을 추가한 것이다.¹³⁾ 「결

- 11) 자추사의 창건을 순교 당시로 보고 있지 않으며, 후에 재건되어 백률사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병도, 「신라불교의 침투과정과 이차돈 순교 문제의 신고찰」 『한국고대사연구』 ; 『두계이병도전집』 3, 한국학술정보, 2012, 737쪽). 한편 사당(자추사)의 건립은 흥륜사 건축이 시작되던 535년경이며, 몽골의 침입 때 훼손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김태형, 앞의 논문, 50~54쪽).
- 12) 이병도, 앞의 논문, 728~729쪽. 이 글에서는 엄촉(厭觸, 厭觸)이 아닌, 위촉(猘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태형은 흰 액체를 분출하는 刺木(구지뽕나무)과 무덤가를 상징하는 楸木(가래나무)의 상징성이 자추사라는 사찰명의 유래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태형, 앞의 논문, 57~58쪽).
- 13) 김태형, 앞의 논문, 50~54쪽. 김태형은 ‘立廟西山’의 서산을 금강산 서령과 西岳(선도산)으로 비정해 볼 수 있다고 하며, 단정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차돈 시신을 북산(금강산)에 장사지내고, 서산(선도산)에 사당을 세웠다고 한다(김병곤, 「신라의 왕경 오악과 (소)금강산」 『신라문화』 43, 2014, 382, 389쪽).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순교비」(“葬屍北山, 立廟西山”)와 「결사문」(“遂乃葬北山之西嶺”)의 기록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동사설에서도 ‘동일지역설’과 ‘위치가

사문)에는 자추사(蘭若) 건립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사당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반면 「순교비」에는 사당(廟)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찰 건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소재지가 西山이라고 하였다. 「결사문」에는 자추사가 「蘭若」라고 하였으니, 사당이 아니고, 사찰임이 틀림없다.¹⁴⁾ 한편 이러한 기록은 사당과는 별도로 사찰이 건립되었다는 가정을 가능케 하며, 사찰(자추사)은 勝地에 건립되었고, 사당은 西山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勝地의 소재지, 즉 자추사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천동마애불좌상 주변을 자추사지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금강산에서 백률사를 제외하고 절터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 물론 이러한 추론의 배경에는 자추사가 금강산에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굴불사지, 동천동 일명사지(龍江里寺址, 혹은 萬善寺 추정), 임천사지, 동천사지, 도량사지 등 폐사지가 확인¹⁶⁾되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차돈 관련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추사의 금강산 위치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그의 무덤에서 찾고 있다.¹⁷⁾ 그의 무덤과 지근한 거리에

전설'로 나뉘어져 있다.

- 14) 김태형의 연구에서는 刺楸寺는 이차돈을 기리기 위한 사당(추모사찰)이며, 그 위치는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산의 서쪽 산록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자추사가 사당이라는 근거로는 「순교비」의 「葬屍北山, 立廟西山」의 기록과 대각국사 義川의 「厭觸舍人廟」(『동문선』 권19, 『대각국사문집』 권18, 缺)라는 시를 들고 있다.
- 15) 한국불교연구원 편, 『신라의 폐사』 I, 일지사, 1978, 77쪽. 朴日薰, 「신라마애탑상 경부 백률사를 중심으로」(『동아일보』 1957.10.30)에서는 마애불 앞의 평지는 옛 지명에 따라 多富里寺址로 불렸다고 한다. 다부리는 多佛里라고도 하며, 지금은 동천동이 아닌 용강동으로 편재되어 있다.
- 16) 박대재, 「경주 동천동 표암 刻石의 銘文과 역사적 환경」 『신라문화』 41, 2013, 424-430쪽.
- 17) 김태형은 무덤은 산 정상, 사당은 무덤의 서쪽이라고 하였다(앞의 논문, 50쪽). 일념의 「결사문」은 「순교비」 『향전』(해동고승전의 내용)보다도 상세함을 알

자추사를 건립했으리라는 추정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무덤의 위치 역시 분명하지 않다. <표 1>을 보면, 이차돈의 무덤 위치에 대해서 기록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금강산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표 1> 이차돈의 무덤과 사찰, 사당 건립에 대한 이설

		작성자	시기	무덤	사당	사찰	관련인물	출전
결사문		一念 (남간사)	원화연간 (806~820)	西嶺	-	刺楸寺	永秀(홍륜사)	삼국유사
비	豊碑	-	817.8.5	-	-	-	國統 惠隆 외	
	순교비	-	818.8.10	-	西山	-	-	순교비
	短碑	-	-	-	-	-	-	해동고승전
향전		-	미상	山頂	-	-	-	삼국유사

2. 무덤 수리와 풍비 건립

이차돈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비석 건립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인용문 (2)②는 국통 惠隆·법주 孝圓·金相郎·대통 鹿風·대서성 眞怒·波玠喰 金嶷 등이 함께 뜻을 모아 무덤(舊塋)을 고치고, 비석(豊碑)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국통, 대통 등 승관의 고위직과 함께 속가제자로 보이는 인물도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생각된다. 한편 각훈은 孤墳과 短碑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렇듯 이차돈과 관련해 현전하는 「순교비」 외에도 ‘豊碑’, ‘短碑’ 등의 기록이 있다.

수 있다. 물론 현재 확인되는 「순교비」 『향전』의 내용이 일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결사문」에서 일념의 꼼꼼한 성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격의 일념이 자추사의 위치를 적기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이 절이 금강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혹 일념이 결사문의 내용을 축약하면서 무덤의 위치 기록을 뺐는지 알 수 없다.

육각형의 「순교비」는 1면에 순교도가 그려져 있고, 각면 7행×1행 24자(25자)로서 총 35행 840~875자가 예상되나 현재 판독 글자는 530여 자에 불과하다. 판독 불능글자에 건립자들의 명단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¹⁸⁾ (2)-②의 내용은 일연이 「순교비」를 보고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建舊瑩樹豐碑’와 ‘孤墳短碑’라는 기록에서 短碑와 豐碑 등 두 개의 비석이 보이는데, 同碑인지 二碑인지 분명하지 않다. 短碑는 「순교비」로 이해하기도 하며¹⁹⁾,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볼 때, ‘短碑=순교비說을 인정하고 있는 듯싶다. 豐碑라는 표현은 9세기 중반 이후 선사들의 탐비에 종종 표기되어 있는데,²⁰⁾ 豐碑는 큰 비석을 말하며 ‘작은 비’라는 의미의 短碑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풍비의 건립 시기는 ‘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이라고 하였으나, 「순교비」에는 ‘元和十三年戊戌八月十日’이라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²¹⁾ 풍비와 「순교비」가 같은 비석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순교비」와는 별개로 이차돈의 비석이 세워졌다고 볼 수 없는데, 현재 「순교비」와 다른 별도의 비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순교비=豐碑=短碑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단비와 풍비는 각훈과 일연의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 비석이라고 생각된다. 각훈은 위의 내용을

18) 남동신의 판독문을 참고하면, 6면 6행 17~19자(法主釋)는 國統惠隆·法主孝圓·金相郎·大統鹿風·大書省眞怒·波珠喰金嶷 중 ‘法主孝圓’과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마멸된 내용 중 찬자에 대한 언급도 기재되었을 것 같다.

19) 이병도, 앞의 논문, 737쪽.

20) 「沙林寺 弘覺禪師塔碑」(金蓮 찬, 886), 「有唐高麗國海州須彌山廣照寺故教諡眞澈禪師寶月乘空之塔碑銘」(崔彥搗 찬, 937), 「高麗國溟州普賢山地藏禪院故國師朗圓大師悟眞之塔碑銘」(崔彥偽 찬, 940), 「新羅國故兩朝國師教諡朗空大師白月棲雲之塔碑銘」(崔仁滾 撰, 954), 「唐高麗大安寺廣慈禪師碑銘」(孫紹 찬, 950) 등에 보인다.

21) 두 시기는 제작을 발의한 시점과 완공 후 비를 세운 시점의 차이일 수 있다. 이 두 기록이 「순교비」에 모두 기록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연은 「순교비」를 제작하기 전에 원문을 보았을 개연성이 있다.

법공(법흥왕)조에 수록하고 있는데, 일연은 법흥왕과 함께 이차돈을 미화하기 위해 풍비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각훈이 금강령에 올라 무덤과 단비를 보았다고 하였으니, 무덤 주변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2)⑤의 「순교비」에 보면, 금강산 일대에는 무덤이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3세기 초 각훈이 이 지역을 방문해 여러 무덤 중 이차돈의 무덤이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차돈 무덤임을 알 수 있게 한 그 무엇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것이 「순교비」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개연성은 있다. 각훈은 무덤과 단비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자추사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미 폐사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일연 역시 『삼국유사』 백률사조에서 「순교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²²⁾ 13세기까지도 「순교비」는 백률사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순교비」는 백률사에서 1914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온 설이 지배적이지만, 발견 위치와 초기 건립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순교비」는 무덤과 가까운 곳에 건립되었던 것이 분명하며, 백률사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차돈의 무덤, 자추사, 「순교비」는 각각 시기를 달리해 조성되었다. 무덤은 순교 직후이며, 자추사는 대략 그의 순교 이후라고 생각되며, 「순교비」는 817~818년에 조성되었다. 「순교비」를 세울 때, 무덤도 보수하였으니, 이때 그의 무덤은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자추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자추사 역시 훼손되었거나 폐사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추모사찰은 흥륜사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22) 자추사와 백률사의 연관성을 일연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권오찬 『신라의 빛』, 경주시, 1980, 192쪽 ; 김태형, 앞의 논문, 57쪽 재인용).

3. 결사문과 향도

(2)①의 「結社文」은 이차돈의 무덤에 향을 사르고, 예불하기 위해 향도를 모집하는 글이다. 이 글에는 이차돈의 순교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차돈을 장사지내고, 그의 동료들이 자취사를 세워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내용도 전한다. (2)③, ④의 내용을 볼 때, 南澗寺 一念은 결사문을 짓고, 흥륜사 永秀禪師는 이 결사문을 보고 모인 불자들과 함께 향도를 결성해 그의 무덤에 焚香하고 흥륜사에서 예불의 의식을 거행했음을 알 수 있다.²³⁾ 예불의 의식 또한 무덤 주변에서 했다는 연구가 있으나,²⁴⁾ 「禮佛」이라는 표현을 볼 때, 사찰에서 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향도 결사와 「순교비」 건립 시기는 원화 연간으로 비슷하나, 선후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에 자극을 받은 고위 승관과 관리들이 「순교비」를 세웠거나, 아니면 무덤 수리, 비석 건립, 결사 수행 등 추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결사문」과 「순교비」의 전체적인 글의 구성을 볼 때, 순교 과정 및 장면 등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특히 이차돈의 순교 장면을 비교해 보면, 「白乳」, 「一丈」, 「地六」, 「雨花」 등 8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며, 「결사문」이 「순교비」보다 당시 상황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²⁵⁾ 이 두 개의 글을 한 사람이 작성했다

23)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사문을 「香壇壇禮佛結社文」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이병도, 앞의 논문, 726쪽).

24) 무덤 주변에서 출토된 석축과 토기편 등을 보고, 예불 의식인 營壇作梵을 무덤에서 했다고 한다(김태형, 앞의 논문, 50~53쪽).

25) 이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기록으로 惠能 입적시의 상황을 참조할 수 있다. 『宋高僧傳』 권8, 習禪篇3-1, 唐韶州今南華寺慧能傳(『대정장』 권50, 755쪽), “以先天二年八月三日俄然示疾。異香滿室白虹屬地，飯食訖沐浴更衣彈指不絕。氣微目瞑全身永謝，爾時山石傾墮川源息枯，鳥連韻以哀啼，猿斷腸而叫咽。或唱言曰，世間眼滅吾疇依乎。”

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결사문」에는 사찰만을, 「순교비」에는 사당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두 사람이 작성한 글로 보여진다. 물론 「결사문」이 원본이 아니고, 일연이 축약한 내용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향도 결사와 풍비 건립을 주관자를 달리한 별도의 추모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차돈의 추모 열기는 앞선 혜공왕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②-⑤의 「순교비」를 보면, 결락부분이 많지만, 혜공왕대에 이차돈의 古事를 전하고 있는데, 幼穉(이차돈)과 老魄이 불법 중흥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²⁶⁾ 이차돈의 추모 모임은 다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도들의 추모의식에서 香墳은 무덤에서 한다고 해도 禮佛은 사찰에서 했을 듯하다. 예불 장소로 적합한 사찰은 자추사와 흥륜사를 들 수 있다. 자추사가 무덤과 동일 지역, 즉 금강산에 있었다면 분향과 예불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을 것이다. 흥륜사는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 세워진 사찰이었고, 또한 흥륜사 금당에 그의 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²⁷⁾ 그런 만큼 흥륜사는 신라인들에게 이차돈의 추모행사를 거행하는데 제격인 사찰이었음에 틀림없다. 흥륜사에서 결사 행사를 치른 또 다른 이유로는 영수선사를 들 수 있다. 그는 흥륜사에 소속된 승려가 분명하며, 결사문을 작성한 남간사 일념 역시 영수선사와 친분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영수선사가 일념에게 결사문 작성을 부탁했을 수 있다.

흥륜사에서의 예불은 禮壇을 만든 다음, 의식을 거행했으며, 이때 범패를 부르기도 했던 것 같다. 신라의 향도 결사는 주로 점찰법회와 만일미타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영수선사는 유식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추진한 이차돈 추모 의식으로 점찰법회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중대 초

26) 혜공왕대 이차돈 설화의 등장 배경에 대해 이때 그의 추모 행사와 자추사가 크게 훼손되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27) 『삼국유사』 권3, 興法3, 東京興輪寺金堂十聖.

漸開가 흥륜사에서 六輪會를 실시하였던 설화를 참조할 수 있으며,²⁸⁾ 이 차돈의 사당이 있다던 서산(선도산)에는 神母가 있었는데, 그녀는 비구니 智惠를 도와 安興寺의 불전을 수리케 하며, 점찰법회를 설립케 하였다는 설화 역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²⁹⁾ 또한 금강산 동쪽 기슭에 있던 道場寺에서는 蛇福을 기리기 위해 占察會를 시행하였다는 기록도 참조할 수 있다.³⁰⁾

향도 결사의 예불 장소는 자추사(혹은 백률사)가 아닌 흥륜사였다. 9세기 초부터 매달 5일에 향도들은 이차돈의 무덤과 흥륜사에서 香壇禮佛의 행사를 치렀으며, 그 모임은 각훈이 활동했던 13세기 초에도 유지되었다. 만약 자추사가 원화연간에도 존치했다면, 예불결사는 이곳에서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흥륜사를 택했다는 것은 이미 이때에 자추사는 쇠락했거나 폐사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백률사가 자추사의 후신이라는 설을 인정하고, 「순교비」가 백률사에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곳에서 추모 결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흥륜사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백률사의 성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결사는 이차돈의 무덤에서 분향의 행사가 치러졌으니, 무덤과 가까운 백률사가 이차돈의 추모 행사의 장소로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아닌 흥륜사를 택했다는 것은 당시 「순교비」는 백률사가 아닌 무덤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니면 백률사와 자추사는 별개의 사찰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28) 『삼국유사』 권5, 효선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조. 육륜회를 실시한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김대성의 어린 시절로 그려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략 신문왕대, 효소왕대가 아닐까 한다. 설화에서는 김대성의 전생을 신문왕대라고 하였다.

29) 『삼국유사』 권5, 감통7, 仙桃聖母隨喜佛事조 참조. 이 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진평왕대라고 하였다.

30) 『삼국유사』 권4, 의해5, 蛇福不言조 참조.

4. 백률사의 창건과 성격

백률사가 자추사를 이은 절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는 중고기에 건립된 사찰은 중대에 들어 寺勢가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중고기에 창건된 황룡사의 경우, 중대에 寺勢가 기울며, 하대에 다시 신장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³¹⁾ 부례랑 설화에서 부례랑이 무사히 돌아오고, 琴笛을 찾게 되자, 효소왕이 여러 恩典을 내리는데, 그 중 백률사의 승려를 봉성사 주지로 옮기게 했다는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다. 봉성사는 685년(신문왕 5)에 창건되었고, 이곳에 成典이 설치되며, 이후 효성왕의 즉위과정에서 불거진 信忠과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된 사찰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봉성사는 중대를 상징하는 사찰 중 하나였다.³²⁾ 백률사가 이차돈을 기념하는 사찰이고, 자추사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과연 백률사의 승려를 중대 성전 사원의 하나인 봉성사의 주지로 임명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백률사의 창건연대를 밝혀야 하는데, 현재 확인된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 뒤에 언급한 「백률사중수기」에는 신문왕대 창

31) 이영호,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 1983, 99-100쪽; 채상식, 「신라동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대사학』 8, 1984, 26-36쪽. 중대 왕실은 중고기의 정치적 유산(잔재)을 청산하고자 했다는 이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寺格과 관련해 朴南守는 단순히 사원 상호간의 寺格에 따른 기능의 전이과정만을 논한 것이라고 하여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統一新羅 寺院成典과 佛事の 造營體系」 『동국사학』 15, 1994, 39쪽).

32) 봉성사는 혜통이 주도하여 창건하였다는 견해가 있다(윤선대, 「신라 중대 成典 寺院과 밀교-중대 국가의례의 시각화와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44, 한국고대학회, 2015, 16쪽). 봉성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문왕원당설(이영호, 「신라 성전사원의 성립」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4, 1993), 무열왕 원당설(이근직, 「통일신라 봉성사와 절원당」 『신라사학보』 7, 2006), 神忠 원당설(윤선대, 「신라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2000) 김유신 원당설(장활식, 「통일신라 출범기의 봉성사와 망덕사 창건목적」 『신라문화』 37, 2011)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건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백률사의 이름이 절개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신라 중대에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 언급한 杻思敬의 西樓記를 보면, 이 글의 작성시기인 1378년에도 백률사의 창건시기를 알지 못했던 같다. 백률사의 창건시기에 대해서 삼국통일 전후 또는 중대 전후설³³⁾이 있으며, 거의 같은 견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 刺楸寺의 刺의 음을 따서 ‘잣’이라 하였고, 楸의 훈을 따서 ‘밤’이라 하여 栢栗寺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백률사는 폐사된 자추사를 이은 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백률사의 이름을 풀이할 수 있다.

첫째, 栢栗寺는 栢栗寺³⁴⁾, 白聿寺(「桃李寺阿度和尙事蹟碑」)라고도 쓰였는데, 잣나무와 밤나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잣나무와 밤나무는 중국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각각 社主(토지신 신주)로 삼았던 나무들이며, 이들 나무들은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준다고 하였다.³⁵⁾ 다시 말해 잣나무와 밤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중국 상고대부터 사당에 심었던 나무였다. 백률사라는 이름에서 ‘사당(혹은 사찰)’으로서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잣나무와 밤나무의 상징성에서 그 유래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결사문』에 이차돈의 품성을 이야기하면서, “竹栢을 뽑아 자질로 삼고, 水鏡을 품어 의지로 삼았다.(挺竹栢而爲質 抱水鏡而爲志)”라고 하여 대나무와 잣나무가 보이며, 『논어』 子罕의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의 푸름을

33) 삼국통일 전후설(한국불교연구원 편, 『신라의 폐사』 I, 74쪽), 중대 전후설(조범환, 앞의 논문, 206쪽) 등으로 추정한다.

34) 李玄逸, 『葛庵集』 권1, 詩, 南征紀行외에도 조선시대의 글에는 상당수 栢栗寺라고 하였다.

35) 『論語』 「八佾」, “哀公問社於宰我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柏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既往不咎.”

알짚구나(歲寒之然後 知松柏之後凋)³⁶⁾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竹栢과 松柏이 등장한다. 『삼국사기』 열전 訥催와 丕寧子の 기록에서도 松柏이 등장하며, 굳은 절개와 고고한 품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되고 있다.³⁶⁾ 또한 잣나무는 효성왕과 信忠의 관계에서 약속과 신의를 상징하기도 하였다.³⁷⁾

밤나무는 근본을 잊지 않는 德이 있는 과일이라고 하여 神主 제작의 재료로 쓰이며, 정직과 충성의 관념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성덕왕 때 기근이 들자, 밤 세 홉을 지급하거나, 절의 노비에게 밤 두 개를 지급했던 사실에서 구황식물로서 그 가치가 있으며, 결혼 폐백에서 쓰이는 밤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한다.³⁸⁾ 불교에서의 밤나무는 元曉의 출생 고사에서 석존의 娑羅雙樹(열반 때)에 비견된 내용이 전하고 있다.³⁹⁾ 석가모니를 모셨던 성스러운 나무, 아이를 보호해 주는 나무라는 관념도 신라인들에게 가능했을 듯싶다. 신라시대의 잣나무와 밤나무는 의리와 절개, 정직과 충성을 의미하는 나무이며, 구황식물로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백률사가 위치한 곳에 많은 잣나무와 밤나무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 있다. 신라시대에 백률사의 주변 환경을 기술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고, 조선시대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백률사에 筍松이 있

36) 松柏은 列傳 訥催조에는 사내의 의리와 절개, 列傳 丕寧子조에 장수의 충성심과 기개를 지키는 표상으로 비유되었다(林栢珍, 「삼국사기로 본 우리 나라의 옛 나무」 『中岳志』 第7號, 嶺南文化會, 1997, 12~14쪽).

37) 『삼국유사』 권5, 피은8, 신충괘관조.

38) 이윤호, 「자기 걸옷을 땅 속에 묻고 훌훌 떠나는 밤나무—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나오는 植物說話」 『숲과 문화』 제13권 제5호 통권77호, 숲과문화연구회, 2004, 50~53쪽. 밤나무에 대해 고려시대 白文寶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밤나무는 잎이 늦게 피지만 피기만하면 쉽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왕성하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栗亭說」 『동문선』 제96권).

39) 『삼국유사』 권4, 의해5, 元曉不羈조 참조. 마야부인이 석가모니를 출산할 때 도움을 받았던 나무는 無憂樹였다. 원효는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初開寺라 하고, 밤나무 옆에 사라사를 세웠다고 한다.

었는데, 그 가지를 잘라내도 움이 트는 신비한 소나무라고 하였다.⁴⁰⁾ 조선 중기의 학자 李彥迪(1491~1553)의 시에는 백률사 주위에 푸른 소나무와 가는 대나무(碧松脩竹)가 묘사되어 있다.⁴¹⁾ 이들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백률사 주위에는 松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그 주변에는 송죽이 많다.

이렇듯 백률사 주변에는 栢栗보다 松竹이 많아 세 번째 추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백률사라는 이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에서 그 유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당에 심고, 신주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백률사는 사당이나, 누군가를 추모하는 사찰로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잣나무가 의리, 정직, 절개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국전쟁과 통일전쟁 과정에서 訥催와 丕寧子 등 화랑의 역할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찰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⁴²⁾ 밤나무는 구황식물로서 활용되었던 성덕왕대의 기록이나, 娑羅樹의 승려 이야기를 볼 때, 삼국 통일 직후 백성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한 중대의 위민정책과도 연결되어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다산, 출생 등의 상징성을 내포한다고 함으

40) 成大中, 『청성잡기』 권5, 醒言, 東都七怪. 강석근은 栢栗笋松의 고사를 이차돈의 환생과 연결지어 풀이하고 있는데, 백률사의 전신이 자추사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栢栗寺 설화와 題詠에 대한 연구- 이차돈 순교 설화와 “栢栗松筍”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2, 2012, 55쪽).

41) 李彥迪, 『晦齋集』 권1, 古詩 今詩, 「望栢栗寺有懷」, “蘭若遙看住翠微 碧松脩竹轉依依 人間有累難超脫 仙賞年來志久違.” 같은 책 권2, 律詩 絕句, 「栢栗寺謝友人乘雪夜訪」, “雪天山夜喜君來 把酒憑闌更快哉 天地中間興無盡 笑他王子到門迴 日出雲收眼界開 登樓對酌穩談懷 休言騷客淡生活 雪滿千峯酒滿杯.” 이 시에서 ‘登樓’라는 표현을 볼 때, 16세기 당시에 도 누각(西樓)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이 누각은 찾아볼 수 없다.

42) 신라 태종무열왕이 황산벌 대백제전에서 전사한 화랑 장춘랑과 괴랑을 위해 한산주에 莊義寺를 창건했다(『삼국유사』 권1, 紀異1, 長春郎罷郎). 조선 태종 때 장의사에 잣나무가 있었다고 한다(『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1409) 6월 15일 병진, “震明通坊栗木, 藏義寺栢木.”).

로 통일 이후 다산을 염원하는 마음의 발로로서 백률사라고 했을 지도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백률사는 신라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중대 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랑, 백성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거나,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고, 나아가 多産을 위해 세운 사찰일 수도 있다. 경덕왕의 부인인 만월부인이 祈子을 위해 금강산 瓢巖을 방문했던 자취가 있고, 경덕왕 또한 백률사 방문 기록도 찾아진다.⁴³⁾ 부레랑 父 김대현이 救子를 위해 찾았던 사찰이 백률사였으며, 백률사 관음과 琴笛의 밀접한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Ⅲ. 고려시대의 백률사

부레랑 설화에 보이는 관음보살과 琴笛의 이야기는 고려시대에도 백률사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은 고려 후기에 작성된 延昌君 朴孝愰(?~1337)의 시를 통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栢栗寺조에는, 절은 金剛山에 있으며, 梅檀木으로 조각한 불상이 있다고 서술한 다음, 아래 3편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⁴⁴⁾

43) 『삼국유사』 권3, 탑상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조. 743년(경덕왕 2) 왕의 후비 滿月夫人이 得男을 기원하기 위해서 표암 주변 사찰에서 幢幡을 봉안한 의식을 치르고, 금강산 남쪽 기슭의 표암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문을 남겼다고 한다(박대재, 「경주 동천동 표암 刻石의 銘文과 역사적 환경」 『신라문화』 41, 2013, 410-417쪽). 이 명문에서 만월부인이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지만, 부인과 아들이라는 명문(□月夫人□子□也)에서 母子 관계를 주목해 볼 수 있다.

4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경상도 경주부 불우 백률사조, “栢栗寺在金剛山有梅檀像....”

- (3)① 정지상의 시에, “... 누 아래는 곧 계림이니, 기괴한 것을 이루 다 셀 수 없고 늙은 나무에 연기가 부슬부슬, 一萬戶에 비졌네. ... 돌이켜 崔孤雲을 생각하노니, 문장은 중국을 진동시켰네. 布衣로 갔다가 비단 입고 돌아오니, 나이는 아직 29세도 안 되었네. 흰玉에 파리가 黠을 찍으니, 당시에 쓰여지지 못하였네. 지금 南山 속에, 오직 채소밭 하나 남아 있네. 아득하구나 九世孫⁴⁵⁾이여, 소년으로서 卒伍에 들어갔네. 불려다가 선비의 冠을 씌우니, 세상 사람들이 어진 이의 후예임을 알게 되었네. 또한 薛 선생이 있었으니, 龍虎같이 일어났네. 方言으로 五經을 강의하니, 學者가 東魯에 비유하였네. 세상에서는 二君子라 불려서, 명성이 같기가 李白과 杜甫와 같았네. ... 돌아와 부처[金仙]를 뵈오니, 빈堂에 향이 한 가닥 타네. 머리를 조아려 우리 임금 수복 축원하노니, 만년 하느님의 보우를 받으소서. 상상하건대 부처님의 묘하고 밝은 거울,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리. 閔子泉에서 차[茶]를 試飲하니, 차 그릇에 雲乳가 發하네. 壽翁의 詩를 세 번 거듭 읽으니, 벽에 가득할 손구슬을 토해놓은 듯. 즐거워라 근심하는 바가 없으니, 이 즐거움이 어찌 그리 예[古]스러운가. ...” 하였다.
- ② 박효수의 시에, “... 거주하는 중은 오직 두 세 사람, 누가香火의 주인고 멀리 조망하려고 西樓에 오르니, 처마와 기둥이 날아 춤추는 듯. 남쪽 트인 곳에 인가가 조밀하며, 문물은 신라의 옛 땅일세. 金刹들이 인가 사이에 섞여 있어 열에 아홉은 되는 듯. 聖跡이 세속에 섞여 있어서, 지나가는 손이 구경하기에 바쁘도다. 큰 저택과 아름다운 절들이, 戰亂 뒤엔 들밭을 이루었구나. 법당에 白衣觀音 있으니, 묘한 조화가 비할 데 없네. ㉠ 거문고와 옥피리로 바다를 건넜으니, 지난 일이 벽 뒤에 가득하네. ㉡ 兵禍가 두려워서 여기 와 빌었더니, 방패와 창이 곧 위세를 감추었다네. ㉢ 노둔함을 한탄하여 총명을 빌었더니, 어리석고 노둔한 자에게 총명을 내려줬네. 구하는 모든 것에 감응해주니, 넓은 문은 일찍이 닫히지 않았구나. ...” 하였다.
- ③ 全思敬의 西樓記에, “계림에 있는 樓觀들 가운데에서 백률사의 樓가 가장 훌륭하다. 先儒 鄭知常의 무리가 시를 지어 아름다움을 극찬하였다. 절을 창시한 年月은 고증할 길이 없으나 쇠잔하고 황폐함이 이미 심하

45) 최치원의 9세손은 윤관을 따라 여진 정벌에 나서고, 평양 궁궐 수리의 감독관이었던 崔弘宰(?~1135)가 아닐까 한다.

여 경지와는 서로 걸맞지 않는다. 鈴平君 相國 尹承順이 경주부윤이 되어 온지 2년 만에 왜구가 물러가자 군사들은 오랫동안 한가하였다. 절의 주지 見海와 경주부의 판관 沈于慶과 함께 중수할 것을 계획하고, 통례문지후 金精美와安逸 金君子에게 명하여 成卒을 거느리고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이 절은 나라에서 향을 내려 주어 왕실의 복을 비는 곳이며 사대부들이 항상 왕래하는 곳이다. 더구나 신라 고도의 웅장한 풍경과 멀리 트인 조망이 모두 이 누에 모여 있다.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가 아니면 누가 퇴폐된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화려한 새집을 지어서 사방의 유람객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겠는가. 불전을 수리하여서 부처에게 복을 바라는 것 따위는 윤공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이상 신증동국여지승람).

위의 인용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원래 ③-①-②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시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3)-①은 일연의 선배 鄭知常(?~1135)이 백률사 小樓에서 본 경주 시내의 풍광을 읊고, 최치원과 설총을 회상하며, 그리고 불전에서 임금의 수복을 기원하고 나와 민자천의 물로 차를 다려 마시고, 절을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이 시를 보면, 12세기 초 백률사 경내에서 小樓-佛殿-민자천 등 세 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3)-②는 일연의 후배 박효수가 백률사 西樓에 올라 경주 시내와 백률사 경내의 풍광을 읊고, 불전의 관음보살을 참례하고, 임금의 壽福과 태평성세를 기원했다는 내용이다. 그의 시를 보면, 첫째, 당시 14세기를 전후하여 백률사에는 2-3명의 스님이 머물고 있던 번성한 사찰은 아닌 듯하고, 둘째, 백률사 법당에는 백의관음보살상을 봉안하고 있었으며, 셋째, 백률사 관음보살의 영험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3)-③은 1378년 작성된 全思敬(생몰년 미상)의 西樓記이다. 이 글은 鈴平君 尹承順(?~1392)이 鷄林府尹⁴⁶⁾으로 있을 때 백률사 西樓를 중수

46) 『경주선생안』을 보면, 윤승순의 경주부윤 재임기간은 1375년 5월 2일~1376년 2월 22일이며, 판관 심우경의 재임기간은 1375년 8월 26일~1378년 7월 14일까

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백률사는 왕실의 복을 비는 곳이었으며, 사대부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지상의 시에는 백률사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西樓記에서는 “창시한 年月은 고증할 수 없으나 쇠잔하고 황폐함이 심하다”고 하였다. 박효수의 시에서도 경주의 ‘큰 저택과 아름다운 절들이, 戰亂 뒤엔 들밭을 이루었다[甲第與朱宮 亂後成野圃]’라는 표현을 보면, 武臣亂 이후 농민봉기와 몽골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백률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일연(1206~1289)의 활동 당시의 백률사 역시 戰禍로 인해 크게 황폐해졌던 것 같다.

박효수의 시에는 부례랑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다를 건넌 금적(琴笛泛鯨壽)’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것이 부례랑의 이야기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효수가 언제 백률사를 방문했는지 알 수 없지만, 13세기 말 14세기초 그가 활동할 때 백률사 관음과 琴笛의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정지상이 백률사 관음과 부례랑의 설화를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부례랑 설화가 정지상과 박효수의 사이, 즉 1130년대~1330년대에 유포된 설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일연이 편집한 부례랑 설화의 전거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궁금한데, 일단 구술자료는 아닌 듯싶다. 왜냐하면 부례랑 설화에서 日字, 지명, 인명 등이 상당히 상세함을 볼 때 일연은 문헌을 보고 정리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一倅作都仇家奴 牧於大磨之野’라는 細註를 주목하면, 일연이 부례랑 설화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2개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一倅’이라는 표현은 구비전승자료가 아니고 문헌자료임을 말해주고 있다. 자료의 출처지는 우선 백률사를 염두해 둘

지 었다(강석근, 앞의 논문, 43쪽 재인용). 실제 서루의 중수 시기인 1378년과 차이가 있다.

수 있다. 박효수의 시를 통해 볼 때, 당시 백률사는 황폐했지만, 사찰 관련 설화의 잔편을 정리한 문건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의 시에서 ‘지난 일이 벽 뒤에 가득하다(往事森壁後)’는 표현을 주목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실제 벽에 쓰여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절의 구석구석에 관음의 자취가 있다는 의미인지 분명치 않지만, 전자로 보고 싶다. 그 이유는 鄭知常의 시를 참고할 수 있는데, 그의 시에 “壽翁의 詩를 세 번 거듭 읽으니, 벽면 가득 주옥같은 시문이 토해져 있네(三復壽翁詩, 滿壁珠璣吐)”⁴⁷⁾라는 내용을 보면 절의 벽면에 무언가 씌어 있음을 암시한다. 벽에 가득 씌어져있는 시문 중에는 부레랑 설화를 주제로 한 내용도 있었을 듯하다. 정지상이 활동했던 12세기 초에도 백률사에 부레랑 설화는 전해지고 있었으며, 일연이 처음 수집해 『삼국유사』에 수록한 것은 아닐 듯 싶다.

한편 박효수는 시에서 백률사 관음보살의 영험담으로 세 가지를 적고 있다. ㉠ 부레랑 구출(琴笛泛鯨濤), ㉡ 전쟁중식(干戈旋韜虎), ㉢ 지혜수여(與聰於慧魯) 등인데, ㉡와 ㉢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서술 내용이 발생 시대순으로 작성되었는지 단언하기 곤란하지만, 개연성은 높다. 중생사 관음의 영험담이 시대순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삼국유사』 三所觀音 衆生寺조에는 衆生寺 관음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최승로의 일화, 992년 3월(성종 11) 性泰가 대성의 도움으로 香祀를 이을 수 있었던 일, 화재시 스스로 몸을 피한 관음, 1173년(명종 3) 글자를 알지 못하던 승려 占崇이 관음대성의 보살핌을 받아 절을 지킬 수

47) 壽翁은 崔瀼(1287~1340)의 字인데(『고려사』 권109, 열전22, “崔瀼, 字彥明父, 一字壽翁, 鷄林人, 文昌侯致遠之後”), 그는 정지상의 후배로서 정지상이 그의 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최해는 최치원의 10세 손이다. 珠璣에 대해서는 『계곡선생집』 권26, 칠언 고시, “次韻酬張生希稷贈歌”(“藏書千卷盡携來, 丹鉛點點窮朝暮, 我唱君和互相屬, 滿腹璀璨珠璣吐.”)를 참고할 수 있다.

있었던 사례 등 4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占崇의 이야기는 위의 ㉔의 이야기와 통하는 바가 있을 듯싶다. 박효수가 사건의 발생순으로 기록한 것이라면 ㉔와 ㉕의 이야기는 ㉔보다 후대인 고려시대에 발생한 사건일 수 있으며, 일연이 고려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중생사의 영험담과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중복 기술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일연이 부례랑 설화 외에 영험담이 많았으나 글이 번잡하여 실지 않는다⁴⁸⁾고 한 표현을 보면 일연 역시 ㉔와 ㉕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백률사에는 부례랑 설화를 기록한 시문이나 문건이 있었으며, 일연은 그것을 참고했을 것 같다. 물론 직접 백률사에 가서 수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수집 자료를 참고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IV. 백률사의 목조관음상

백률사는 신라의 대표적인 관음도량이었다. 이곳에는 관음보살상 외에 금동약사여래입상이 1930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지기까지 이곳 대웅전에 모셔져 있었다. 盛唐 양식이 신라화된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8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⁴⁹⁾ 이 약사불상이 백률사에서 조성, 봉안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찰에서 이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봉안 이후 관음보살과 함께 중요한 신앙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신앙과 함께 미타신앙의 유포를 보여주는 유물도 있다. 경덕왕 때에 백률사 아래에 굴불사가 창건되는데, 이곳에 이미 사방불이 존재했음

48) 『삼국유사』 권3, 탑상4, 백률사조, “後多靈異, 文煩不載.”

49) 鄭富美, 「栢栗寺 金銅如來立像을 통해서 본 통일신라시대 대형 금동불 製作技法」 『美術史學研究』 255, 2007, 13쪽.

으로 이 사방불은 백률사와 관련이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굴불사의 사방불은 동쪽에 약사불, 남쪽에 석가불, 서쪽에 아미타불, 북쪽에 11면6擘의 관음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⁵⁰⁾ 백률사 위쪽에는 동천동마애삼존불 좌상이 있는데, 이 마애불을 석가삼존, 또는 미타삼존이라고도 한다. 중앙의 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왼쪽의 협시보살은 본존을 향해 머리를 돌렸으며, 오른쪽 협시보살은 머리에 쓴 보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어 관음보살로 추정된다고 한다.⁵¹⁾ 신라시대에 백률사 아래의 굴불사에는 11면6비의 관음보살이 있고, 위쪽으로는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이 확인된다. 밀교의 영향을 받은 11면6비 관음은 11면관음, 如意輪觀音(6비), 불공전삭 관음(11면20비)의 변용으로 보이며, 보관을 쓴 관음은 미타불의 협시보살로서 중생의 극락왕생을 인도하는 보살이었다. 변화관음인 11면관음과 보관을 쓴 관음은 별개의 소의경전에 근거한 신앙대상이었다. 여기에서 11면관음이나 미타정토의 관음과 구별되는 관음신앙이 백률사에 유포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법화경』 보문품에 근거한 관음신앙이었다. 백률사를 중심으로 금강산 일대에는 다양한 관음신앙이 전래되고 있었고, 신라의 대표적인 관음신앙처로서 백률사를 주목해 볼 수 있다.⁵²⁾

50) 『삼국유사』 권3, 탑상4,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조 김리나, 「경주 굴불사지의 사면석상에 대하여」 『진단학보』 39, 1975, 43-68쪽. 한편 약사여래(동), 보살 2구(남), 미타삼존(서), 여래상(북)으로 보기도 한다(한국불교연구원 편, 『신라의 폐사』 I, 80쪽).

51) 석가삼존(朴日薰, 「신라마애탑상 경주백률사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1957. 10.30)과 미타삼존(박방룡, 「경주금강산의 불적」 『굴불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6)으로 보기도 하는데, 화불이 조각된 보관을 쓴 관음보살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사가현 鑿師社 소장 고려의 수월관음도에도 화불의 보관을 쓰고 있다.

52) 한편 백률사 외에 양양 낙산사를 주목할 수 있다. 의상의 「白華道場發願文」에는 수월관음[水月莊嚴], 미타불의 협시[頂戴彌陀], 千手千眼 등 다양한 응화신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발원문의 찬자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발원문이 의상의 사상을 반영하거나 계승한 것이라는 설을 받아들인다면

인용문 (1)②에서 일연은 백률사 대비상의 제작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일연은 먼저 백률사 대비상의 제작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前提하고, 제작자에 대해서 중생사의 관음상을 만든 중국 神匠설을 들고 있으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관음상의 제작과 관련해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4)① 新羅古典에 전하길, “... <畫工은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데 혹은 張僧繇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는 뭇나라 사람이다. ... > ... 화공은 十一面觀音像을 그려서 바치니 꿈에서 본 것과 일치하므로 그제야 황제의 뜻이 풀려서 그를 놓아주었다. 그 화공은 화를 면하게 되자 博士 芬節과 약속하여 말하기를, “내가 듣기를 신라국은 불법을 공경하고 믿는다고 하니, 그대와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함께 佛事를 닦아 널리 仁邦을 이롭게 하는 것이 또한 유익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어 서로 신라국에 와서 이 절의 大悲像을 이룩하니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공경하고 기도하여 복을 얻음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삼국유사』 권3, 탑상4, 三所觀音 衆生寺)

② 옛날 신라 제32대 신문왕 때 나무가 동해에서 開雲浦로 들어오더니 동쪽으로 7일간을 떠다녔다. 그때 마침 당나라 사람 僧理(僧繇의 오자)가 입국해 있었는데, 이름을 率居라고 고치고, 사물을 그리는데, 생생하고 영묘하여 믿고 따르는 자가 많았다. 왕이 술거에게 가서 (나무를) 보도록 명하니, (술거가) 돌아와 아뢰기를, “梅檀香木이 佛土에서 온 것인데 으뜸기는 값진 보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이 술거에게 명하여 그 향나무로써 관음상을 세 개 만들게 하고, 세 절을 세우니, 그 첫째가 백률사, 둘째가 중생사, 셋째가 민장사였다. 세 개의 존상을 맞아 (세 절에) 봉안케 하고, 田民을 주어 (존상을) 공양하고 예를 표하도록 하니

(정병삼, 「백화도량발원문약해의 저술과 유통- 새로 발견된 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1, 2010, 34쪽) 의상의 관음신앙의 일면을 살피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을까 한다. 의상은 『화엄경』에 근거해서 관음보살의 주처신앙처로 낙산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니, 그의 신앙 대상은 다양한 관음보살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통함이 밝게 드러났다(백률사중수기).⁵³⁾

(4)①은 중국 화공이 신라로 건너와 중생사 대비상을 제작했다는 설화의 내용이다. 중생사 대비상의 제작자에 대해서 일연은 『新羅古傳』을 인용하여 성명 미상의 중국 畫工설과 細註에서 양나라 張僧繚설 등 두 가지 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화공이 張僧繚(502-557)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 않다.

중국 화공이 제작했다는 중생사 관음보살상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傳중생사 석조관음보살상은 십일면 관음보살이다. 중국 화공이 황제에게 바쳤던 그림 역시 십일면관음보살이라 서로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⁵⁴⁾ 그러나 일연은 중생사 관음보살상은 塑造였다(1)② 塑造衆生寺像)고 했으므로, 지금의 석조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또 傳중생사 석조관음보살입상은 그 제작 시기를 대략 8-9세기로 이해하고 있어 중국 화공의 제작 연대와도 차이가 있다. 중생사 관음보살상은 십일면관음보살상이 아닐 수 있다.

『新羅古傳』에서는 중생사 관음보살상의 제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출처 미상의 或云(1)②)에서는 백률사의 관음상 역시 중국 화공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들 기록과 관련해 「백률사중수기」를 참고할 수 있다. 「백률사중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443년 尹思瞻이 지은 중수기이고, 둘째

53) 尹思瞻, 「栢栗寺重修記」(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편, 『조선사찰사료』, 1911, 420-423쪽), “昔新羅 三十二神文王之世 有木自東海而來 入于開雲浦 東流七日于時這有唐人僧理來入國中 改名率居 盡物生靈 信向者衆矣 王命率居 奉詔往見而納言曰 栢檀香木從佛土而來 第一無價寶也 於是大王以其木 又命率居 作觀音三像 而册立三寺, 一曰栢栗, 二曰衆生 三曰敏藏 三像安 邀屬納田民 供養致敬 而神通明現.”

54) 백률사 관음보살상은 중생사와 마찬가지로 동일인에 의해 제작된 십일면관음보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조범환, 앞의 논문, 200쪽).

는 1608년 작성된 작자 미상의 증건기이다. 증수기는 다시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 백률사 관음상의 제작 연기설화이고, ㉡ 부례랑을 구출한 관음상의 영험설화이며, ㉢ 윤승순과 그의 아들 윤곤의 백률사 증수 사실이 그것이다. 이 중 ㉡의 이야기는 『삼국유사』 백률사조에 수록된 부례랑 설화의 내용과 같다. 증건기는 1443년 揭板의 글씨가 삭아 다시 썼다는 것과 임진왜란 때 소실된 殿閣, 堂宇 등을 1604년 경주부윤 李時彦이 法莊에게 명하여 증건케 하고, 이듬해 부윤 尹曜 때 마쳤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인용문 (4)②의 내용은 「백률사증수기」 중 ㉠의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백률사, 중생사, 민장사 등 삼소관음상은 신문왕 때 당나라 장승요(率居)가 인도에서 건너온 栴檀香木으로 제작한 것이며, 삼소관음도량 역시 이때 창건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新羅古傳설과 或云說을 합쳐 놓은 것인데, 一木은 만파식적조에 보이는 거북모양의 섬이나 대나무와 유사한 소재를 보여준다. 이 설화는 『신라고전』의 중국 화공설화와 신문왕대 만파식적설화에서 부회된 것으로 생각된다. 효소왕대의 부례랑 설화와 연결하기 위해 신문왕대에 관음보살상을 제작하였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삼소관음도량이 신문왕대에 창건되고, 삼소관음상이 솔거가 제작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솔거는 경덕왕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며, 그의 작품으로 황룡사 老松, 분황사 관음보살도, 단속사 유마상이 있었다.⁵⁵⁾ 장승요가 솔거라는 인식은 신라인들의 인식이 아닌 17세기 조선중기의 인식

55) 『삼국사기』 권48, 列傳8, 率居. 이 외에 ‘진흥왕복수대렵도’가 있으며(金允植, 『雲養集』 권12, 書後, 題新羅眞興王北狩大獵圖; 『한국문집총간』 328책, 455쪽), 솔거를 眞興王 때의 인물로 추정한 조선 중기 李暉光의 『芝峰類說』의 기록이나 神文王 때에 張僧繇가 솔거로 개명하였다는 「栢栗寺重修記」의 기록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吳世昌, 『槿域書畫徵』, 普文書店, 1975; 安輝濬, 「회화」 『신편 한국사』 9, 481~482쪽).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일연 사후 만들어진 설화가 분명하다. 일연 역시 관음상의 제작자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설화가 일연 생존시에도 유포되었다면 일연은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설화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중국에서 온 사람(畫工, 혹은 神匠, 張僧繇)에 의해 삼소관음상은 제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조선중기에도 전승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이승휴가 활동했던 때의 수다사에는 당나라 화가인 吳道玄(吳道子)의 관음보살도가 있었다고 한다.⁵⁶⁾ 오도자 그림의 도입 시점이 신라 때인지, 고려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신라고전』의 기록처럼 중국 畫工이 그린 그림이 실재 신라에 들어와 삼소관음도량 중 한 곳에 봉안되었던 일은 사실일지 모른다. 그리고 불전에 도상 외에 보살상이 彫像되어 봉안되었기 때문에 화공이 神匠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畫工說과 神匠說이 섞여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공이 도상 뿐만 아니라, 조각도 했을 수 있으나, 신장설이 전해지고 있음을 볼 때, 『신라고전』의 중생사 관음보살은 십일면관음보살로서 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전 안에 봉안된 보살상은 도상이 아닌 조각상이었을 것이고 일연의 지적처럼 소조상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4)②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백률사 관음상은 목조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은 『태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단목으로 만든 백률사 관음보살상이 1412년(태종 12) 경

56) 『동안거사집』(『動安居士行錄』 권1, 行錄, 水多寺留題), “初五日, 冒雪抵宿是寺, 壁上懸白衣畫幀, 乃吳道子之真迹也. 權學士迪守江陵時, 作贊題于其傍云, ‘經旬雨雪且狂風, 獨坐無聊小閣中, 賴有白衣觀自在, 一廻瞻禮萬緣空.’ 其嗣子敦禮學士以襯衣使到此跋尾云, ‘此詩蓋指庚癸之際, 士大夫莫不詭隨, 獨家君守忠義於一邑, 常以自心觀自在緣督爲經, 雖當時擾攘, 無足累其心尔, 僕讀之不勝悲慨.’ 因次韻作二郁. ‘漫天玉糝弄輕風, 却似當時一望中, 禮罷白衣瞻古壁, 墨龍猶欲化虛空.’ ‘但於黃卷飽英風, 那復周公見夢中, 水月壁間留寶墨, 令人遇事輒觀空.’”

기도 양주 開慶寺로 이전되었다.⁵⁷⁾ 태종은 부왕 太祖와 모후 神懿王后的 명복을 빌기 위해 개경사에 관음전을 짓고, 백률사에서 옮겨온 관음상과 『묘법연화경』 2부를 金字로 사경해 봉안케 하였다.⁵⁸⁾ 1530년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전단목으로 만든 불상이 있다고 하였다. 관음상을 개경사로 이전했는데, 존상이 백률사에 남아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의심스러우나 그 해답은 「백률사중수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백률사중수기」의 세 번째 내용(㉔)은 전사경의 서루기 이후의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 초기의 백률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4)㉔ 윤승순은 1378년(백률사) 西樓, 堂室, 門廊 등을 중수하고, 1410년 寺主 一宣의 청으로 大殿을 중수했으며, 최근에 영묘사로 이전된 중생사, 민장사의 관음존상을 다시 이곳으로 이전케 하였다. 1412년 태종의 명으로 殿主 관음대성을 양주 개경사로 옮겼으나, 머무른 곳이 아니므로 영험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1415년 경주부윤 파평군 尹坤이 나머지 부족한 곳을 보수하였다(「백률사중수기」 축약).

위의 인용문에는 중생사, 민장사의 관음상이 언젠가 영묘사로 이전되었다가 1410년 백률사의 대전을 중수한 후 다시 모셔왔다고 한다. 백률사에는 중생사, 민장사의 관음존상 등 3개의 존상이 있었는데, 1412년 이 중 존상 하나를 개경사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개경사로 이전된 존상이 삼소관음 중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殿主 관음대성’이라는 표현을 볼 때, 본래 백률사에 있었던 관음상을 이전한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치

57)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18일 경오, “移安雞林 栢栗寺旃檀像觀音于 開慶寺 從開慶住持省敏之啓也.”

58) 卞季良, 「開慶寺觀音殿行法華法席疏」 『春亭集追補』 疏, “... 佛寶滿十方三世, 觀音加被. 最號神通. 經論有萬軸千函, 妙法靈詮, 實爲管轄. 嘗書二部以金字, 具營一殿於山陵, 以安慈尊而置秘典, 令藪名香而參禮, 仍集淨流以演揚, 水月眞容, 刹刹塵塵之普現, 蓮華實相, 言言字字之分明, 影響感通, 河沙功德. ...”

않다. 개경사는 태조 이성계의 陵刹이었으며, 백률사 관음보살상을 이곳에 봉안했던 것인 만큼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불상임은 알 수 있다. 관음상을 개경사로 옮긴 이후 백률사에는 두 개의 존상이 남아 있었으며, 『신중동국여지승람』에서 말한 전단목의 관음상은 실재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조선초에 백률사에는 전단목으로 만든 관음보살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이 보살상이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再彫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인, 고려인들의 불상에 대한 외경심을 근거해 볼 때, 재조한 작품이라고 해도 초창기의 대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박효수는 백률사의 대비상을 백의관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변계량(1369-1430)은 「개경사관음전행법화법석소」에서 백률사에서 옮겨온 관음을 수월관음이라고 하였으며, 관음신앙의 소의경전으로는 『法華經』을 들고 있다. 박효수와 변계량의 기록을 인정한다면, 백의관음을 백률사의 관음이라면, 개경사로 옮긴 수월관음은 백률사의 것이 아닌 중생사나 민장사의 관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효수와 변계량의 관음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차이일 뿐 별개의 관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수월관음은 흰색의 天衣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백의관음이라고도 불렸으며, 투명한 白衣로 수월관음을 표현하는 것은 고려불화의 특징이라고 한다.⁵⁹⁾ 崔暲가 13세기 초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수월관음도를 그렸다는 내용을 보면⁶⁰⁾, 당시에 수월관음과 백의관음을 별개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

59) 장경희, 「고려 수월관음도의 백의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8, 1994, 43-45 쪽.

60) 이규보, 『동국이상국전집』 권41, 석도소, 「崔相國攘丹兵畫觀音點眼疎」, “謹案大悲施羅尼神呪經云, 若患難之方起, 有怨敵之來侵, 疾疫流行, 鬼魔耗亂, 當造大悲之像, 悉傾至敬之心, 幢蓋莊嚴, 香花供養, 則舉彼敵而自伏, 致諸難之頓消. 奉此遺言, 如承親囑, 茲倩丹青之手, 用摹水月之容, 吁哉繪事之工, 肖我白衣之相, 罄披霞懇, 仰點蓮眸. 伏願濫借丕庥, 仍加妙力, 如至仁廣大, 憐令醜類以盡

나, 수월관음을 백의관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렸음을 볼 때, 크게 구별한 것 같지는 않다. 앞서 언급했던 수다사에는 오도자가 그린 白衣畫幀이 있었는데, 이승휴(1224-1300)는 이 백의관음을 水月(水月壁間留寶墨)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표 2> 고려시대 백의관음의 용례

용례	전거	소재	조상
白衣 (像)	「國淸寺金堂主佛釋迦如來舍利靈異記」(閔漬 ; 『東文選』 권68, 記).	盧祐 소장	圖像
	「讚白衣」(이색, 『목은시고』 권16, 詩)	미상	圖像
白衣尊	「觀音窟」(李詹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 開城府上 불우)	淸平山 觀音窟	石像
白衣眞	「題竹坡趙先生所居」(이곡, 『稼亭集』 권20, 律詩)	竹坡의 書齋	圖像
白衣仙	「孟秋望日 記事有感」(『목은시고』 권35, 驪興吟)	미상	미상
	「跋黃蘗語錄」(『목은문고』 권13, 跋), 「自詠 四首」(『목은시고』 권7, 詩)	미상	圖像
白衣仙人	「花岩寺雲梯」(白文節 ; 『동문선』 권6, 七言古詩)	佛明山 花岩寺	圖像
	「有感」(이색, 『목은시고』 권16, 詩)	미상	圖像
白衣大士	「東遊記」(이곡, 『稼亭集』 권5, 記, 1349년)	양양 洛山寺	미상
	「我寓」(이색, 『목은시고』 권35, 咸昌吟),	菩提寺 방장실	圖像
白衣觀音	「(了)幻上人竹齋記」(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권11, 記)	松家島 普門精舍	圖像
白衣觀自在	「水多寺留題」(權迪 ; 李承休, 『動安居士行錄』 권1, 行錄)	강릉 水多寺	圖像

고려시대에는 <표 2>에서 보듯이 白衣尊, 白衣大士 등 詩句의 운을 맞추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대부분 圖像으로 제작되었다. 도상은 백의관음을 그리지만, 불전에는 聖觀音을 봉안했을 것이다. 수월관음 역시 33응신의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관음보살의 통칭, 즉 聖觀音으로 보

劉, 以無畏神通, 俾反舊巢而自却.” 고려시대에는 『大悲陀羅尼神呪經』에 근거한 水月觀音圖가 제작되고 있었다.

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효수의 시만을 보고, 백률사의 관음보살상을 목조백의관음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목조관음보살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정시상과 박효수의 시에 ‘벽면’이 이야기되고 있음을 볼 때, 목조관음보살상과 함께 별도로 벽면에 백의관음보살도나 부레랑의 설화가 벽화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불상과 함께 벽화를 조성한 사례를 8세기경 진표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금산사를 세우고, 766년 미륵장육상을 조성해 금당에 안치하고, 금당 남벽에 미륵보살이 계법을 주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⁶¹⁾

신라 분황사 천수천안관음은 절의 左殿 북쪽 벽에 그린 圖像이었다. 金坵(1211~1278)의 「洛山觀音慶讚疏」에서 繪塑라는 표현을 보면, 당시 낙산사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도와 별도의 塑像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²⁾ 李穀(1298~1351)은 「東遊記」에서 낙산사 관음을 ‘백의대사’라고 하였는데, 앞서 김구가 언급한 塑像으로 생각되며, 이후 조선 초에 건칠관음보살 좌상이 새로 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에도 낙산사에는 그림과 塑像을 함께 제작했으며, 고려시대에 백의관음보살은 주로 圖像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부레랑과 안상이 대비상 뒤에 와 있었다’는 백률사조의 기록을 보면, 대비상은 圖像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별도로 불전 벽면에 관음보살의 도상이 있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당시 백률사 佛殿은 앞문 외에 뒷문이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되며,⁶³⁾ 대비상이 뒷문을 통해 왔다면 바위의 흔적은 도리천 왕래설과의 관련성이 깊어 보인다.

61) 『삼국유사』 권4, 의해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62) 『東文選』 권110, 疏, “無盡眼無盡臂, 塵塵刹刹之現機, 不住想不住空, 物物頭頭之垂應, 繪塑瞻依之苟切, 聲形感激之難思.”

63) 현재 백률사에는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요사채 등이 있으며, 대웅전 뒷편 오른쪽에 출입문이 남아있다. 다만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중건한 건물이라고 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삼국유사』 백률사조의 중점 내용인 부레랑 설화를 파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도된 글이다. 부레랑 설화의 내용이 신라 효소왕대를 배경으로 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백률사와 그곳에 봉안된 관음보살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률사와 자추사의 관계, 백률사 관음보살상의 제작과 그 영험담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추사는 백률사의 전신이 아니며, 서로 별개의 사찰이었음을 추론해 보았다. 본 가설을 논증함에 있어 우선 이차돈의 추모행사가 흥륜사에서 거행되고 있었음을 주목하였다. 이차돈 순교 후 그의 추모 사업은 원화연간에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번째는 ‘향도 결사’이며, 두 번째는 ‘무덤 수리’와 ‘풍비(이차돈순교비)건립’이었다. 물론 그의 추모 열기는 혜공왕대에도 등장하고 있다. 이차돈 순교 후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이 자추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모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해 보임에도 자추사가 아닌 흥륜사에서 치러지고 있음은 9세기 초 자추사는 추모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 졌거나 이미 폐사가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자추사를 중수하여 백률사로 개명한 것은 아닌 듯싶고, 신라 중대의 백률사는 이차돈의 추모 결사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백률사의 창건시기는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한 통일전후설에 대해寺名을 검토하면서 보완해 보았다. 물론 추론의 논증 과정에서 비약이 있었으나, 참고해 볼만한 견해라고 생각했다. 백률사는 잣나무와 밤나무라는 그 이름에서 통일 전후 화랑, 백성들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찰이거나,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리고, 나아가 多産을 위해 세운 사찰일 수도 있다. 백률사는 통일 전후 중대 왕실의 위민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사찰이 아닐까 한다.

둘째, 일연이 편집한 부례랑 설화의 전거와 출처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일단 구술자료는 아닌 듯싶다. 일연은 부례랑 설화를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일자·지명·인명 등이 상당히 상세함을 볼 때 문헌을 보고 정리했을 듯하다. 수집 장소는 우선 백률사를 염두해 둘 수 있다. 고려시대의 백률사는 武臣亂 이후 농민봉기와 몽골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小樓, 佛殿, 민자천 등이 있었고, 불전에는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었다. 관음보살에게는 부례랑 구원 외에 전쟁종식과 지혜수여라는 영험담이 더 있었다. 그러나 일연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들 설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12세기 백률사 불전 벽면에 적힌 많은 詩句들 중에는 이들 설화를 언급한 내용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려말 조선초 백률사에는 전단목으로 만든 목조관음보살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목조관음보살상이 부례랑 설화에 등장하는 관음보살인지, 이후 재조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중국에서 온 솔거(장승요)가 신문왕대에 삼소관음상을 모두 제작했고, 이들 관음상을 봉안하기 위해 삼소도량을 창건했다는 설화가 17세기초에 유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삼소도량과 관음상은 시기를 달리해 창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소관음도량 중 민장사와 중생사는 13세기 경 잦은 戰禍로 인해 폐사되었으며, 이곳에 봉안된 관음상은 임시로 영묘사로 이전되었다. 당시 백률사 또한 크게 쇠락했는데, 1378년과 1410년에 새롭게 중수되면서 영묘사에 봉안된 두 관음상을 모셔와 3구의 관음상을 봉안하게 되었다. 1412년 이들 관음상 중 하나를 조선 태조의 원찰인 양주 개경사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이전된 관음상은 원래 백률사에 있던 관음상으로 생각된다. 이 관음상은 백의관음, 수월관음이라고도 불렸으나, 당시에는 백의관음과 수월관음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별개의 보살상이 아니다. 이 관음보살상이 고려시대에 재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상에 대한 외경심이 남달랐던 신라

인과 고려인들의 관념을 염두해 둘 때, 이 관음상이 신라 초창기의 작품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강석근, 「백률사(栢栗寺) 설화와 제영(題詠)에 대한 연구- 이차돈 순교 설화와 ‘백률송순(栢栗松筍)’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32, 2012.
- 金杜珍,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史料의 가치」 『구비문학연구』 13, 2001 ;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 일조각, 2014.
- 김복순, 『삼국유사』 권3 「사불산 굴불산 만불산」조의 연구 『신라문화제학술 발표논문집』 37, 2016.
- 김태형, 「이차돈 순교유적과 유물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11, 2011.
- 박근섭, 「화랑제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시각 비판」 『교육학연구』 44권 2호(통권130호), 한국교육학회, 2006.
- 박대재, 「경주 동천동 표암 刻石의 銘文과 역사적 환경」 『신라문화』 41, 2013.
- 徐禎穆, 「孝昭王의 출생 시기 관련 기록 검토」 『진단학보』 122, 2014.
- 신선혜, 「삼국유사 탐상편 백률사조의 종합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 장경희, 「고려 수월관음도의 백의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 8, 1994.
- 조범환, 「삼국유사 탐상편에 보이는 삼소관음중생사조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Abstract

Baekyulsa Temple of Silla and the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Yeo, Sung-gu

This paper focuses on the beginning of the contents of "Samguk Yusa" BaekyulSa(栢栗寺). The introduction mentions the location of Baekyulsa and the production process of Avalokitesvara Bodhisattva statue.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of this paper.

First, I examined the fact that the memorial ceremony of the second generation is being held at the Heungryunsa(興輪寺), not at the Jachusa(刺楸寺) or Baekyulsa. As a result, Baekyulsa said that it was not a temple after Zachusa. Baekyulsa may be a temple built to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Hwarangdo and the people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or a temple built for the children who were sacrificed by war. I think that Baekyulsa is a temple established as part of the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royal family before and after the reunification.

Second, Baekyulsa is the only temple among the three Avalokitesvara Bodhisattva temples that has been continuing its history. In the end of the Goryeo period, Baekyulsa was greatly reduced by various wars, and reconstruction work was carried out until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Among the three Avalokitesvara temples, Gaekyungsa and Minjangsa collapsed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se statues were transferred to the Youngmucos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aekyulsa was

rebuilt and the two statues were transferred to this place. At this time, there were three statues in Baekyulsa, and one of them was transferred to Yangju Gaekyungsa, a memorial temple of Taejo.

Third, there was a wooden Avalokitesvara statue in Baekyulsa Templ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addition to the story of the Buddhist priest, there was a story that ended the war and wised the foolish person. Ilyeon(一然) did not mention it because it was troublesome. As a result, the details of these tales became unknown.

In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Avalokitesvara of Baekyulsa was called the White-Robed Avalokiteshvara(白衣觀音) or the Water-Moon Avalokiteshvara(水月觀音菩薩). This is not two Avalokiteshvara, but the same Avalokiteshvara. Of course, I could not confirm whether this Avalokitesvara statue was a work of the Silla period or later. However, when we look at the ideas of Silla and Goryeo people who had a great deal of awe of Buddha, it seems that even if it was reconstructed, it would not have been much different from the early works.

Key Words : Baekyulsa, Zachusa, Gaekyungsa, Gungsangsa, Minjangsa, Buryeran, Avalokitesvara Bodhisattva

논문 투고일 : 2017. 10. 24

심사 완료일 : 2017. 11. 20

게재 확정일 : 2017. 11. 23